

2024. 1. 11.(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10일 오후 15: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정책과장	천세은	2133-2675
스포츠산업지원팀장	장종석	2133-2695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3쪽

## 오세훈 시장, MLB 부사장 면담... 'MLB 서울시리즈' 계기로 지속적인 파트너십 논의

- 1월 9일(화) 미(美) 라스베이거스서 오 시장, 찰리 힐 MLB 국제사업총괄 부사장 접견
- MLB, 고척돔 정비, 교통·안전 등 '서울 시리즈'에 대한 서울시 행정지원에 감사 전해
- 시, 세계적 수준 잠실 돐구장 건립 위해 MLB와 필드 자문 협력 체계 구축 논의
- 찰리 힐 부사장, '서울 시리즈' 계기로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희망
- 오 시장, MLB와의 다양한 협력 사업으로 야구 세계화 위한 윈-윈 사례 되길 기대

- CES 2024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이 찰리 힐(Charlie Hill)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ajor League Baseball, 이하 MLB) 국제사업총괄 부사장을 만나 서울에서의 지속적인 MLB 정규시즌 경기 개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전하고 잠실 돐구장 건립을 위한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도 논의했다.
-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9일(화)〈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찰리 힐(Charlie Hill) MLB 국제사업총괄 부사장과 면담을 하고, 오는 3월 열리는 '2024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를 계기로 서울시와 MLB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 MLB 월드 투어는 야구의 세계화를 위해 MLB가 2022년부터 ‘월드 투어’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붙여 세계 각지에서 MLB 정규 시즌 경기를 치르는 투어다.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이번 ‘서울 시리즈’는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9번째로 열리는 개막전 시리즈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호주에 이어 3번째다.
  - ‘2024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는 MLB의 정규시즌 개막전으로, 오는 3월 20일(수), 21일(목) 양일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펼쳐진다.
- 이번 면담은 MLB가 ‘2024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고척돔 경기장 시설 관리 및 정비, 교통통제 및 안전 관리 등 행정적 지원에 힘쓴 서울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 서울시는 국내외 야구팬들이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MLB 경기를 즐겁고 안전하게 관람하고, MLB 선수들도 최고의 환경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MLB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고척돔 경기장의 투광등과 인조잔디 교체, 그라운드 정비 사업, 관람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 개보수 등을 진행해왔다.
- 이날 면담에서 오 시장은 세계 최고의 야구산업 노하우를 보유한 MLB와의 자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잠실 돔구장 건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야구 문화 교류 및 유소년 선수 발굴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함께 협력해 양 기관 모두에게 윈-윈(Win-Win) 사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9월 북미 출장으로 캐나다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 로저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잠실 일대에 돔구장을 비롯한 첨단 스포츠, 전시 컨벤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날 찰리 힐 부사장은 야구에 대한 열정이 많은 도시 서울에서 MLB가 가진 다양한 야구 문화·노하우 공유방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이번 ‘MLB 서울 시리즈’의 성공적인 개최가 MLB와 서울시 간의 야구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